

『月牙兒』와 『불』의 비교연구*

유재성** · 이용태***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라오서(老舍)와 현진건의 생애과 문학관
3. 『月牙兒』의 비극적 요소
4. 『불』의 비극적 요소
5. '我(나)'와 '순이'의 비극적 요소 비교
6. 나오는 말

국문초록

본고는 비교연구의 방법 중에서 평행비교의 연구방법으로 한중 양국의 현대문학 초기에 실질적으로 주고받은 영향이 전혀 없는 두 작가의 작품을 선택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를 비교분석해 보았다. 라오서(老舍)의 단편소설 『月牙兒』와 현진건의 단편소설 『불』은 두 작품 모두 어린 여성이 주인공으로 여성으로서 자신이 처한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이란 낮은 위치로 인해서 결국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을 그린 작품이다. 필자는 평행비교연구의 방법을 통해서 비극적인 요소들이 당시의 여성들의 삶을 어떻게 치절하게 망가트리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공통된 모티브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라오서와 현진건은 각각 작품 속에서 도시 하층민 태생의 '我(나)'와 농촌 빈농 출신의 여성인 '순이'를 형상화하여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남성중심 사회와 봉건 사회에서 연약한 여성이 결국 비극적인 삶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 본 논문은 서일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서일대학교 중국어문화학과 부교수(제1저자)

*** 백석대학교 어문학부 교수(교신저자)

키워드: 평행비교연구, 여성, 비극적 삶, 문학의 보편성, 비극적 요소

1. 들어가는 말

본고에서 다루고자하는 라오서(老舍)의 단편소설 『月牙兒』와 현진건의 단편소설 『불』은 두 작품 모두 연약한 여성의 비극적인 삶을 다루고 있다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두 소설은 어린 여성이 주인공으로 여성으로서 자신이 처한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이란 낮은 위치로 인해서 결국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을 그린 작품이다. 두 소설에서 표출된 주인공의 비극적 삶은 주인공 본인들에 의해서 생겨난 불행이 아니라, 경제적·사회적으로 약자인 여성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고 육체적인 노동을 감당해야 하는 여성의 위치에서 야기된 것이다.

본고는 비교연구의 방법 중에서 평행비교의 연구방법으로 한중 양국의 현대문학 초기에 실질적으로 주고받은 영향이 전혀 없는 두 작가의 작품을 선정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를 비교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는 동양문학의 범주에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중 양국의 문학적 입장에서 보면, 동양문학과 세계문학의 보편성을 탐색하고, 과거 서양 중심의 세계문학이라는 편견을 재조정하는데 중요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다고 본다.

한국문학연구를 출발점으로 해서 세계문학의 보편적인 이론수립에 이르는 것이 한국에서 하는 비교문학연구의 목표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향 관계의 논증을 비교문학의 가장 긴요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 중략 ... 이제 방향을 바꾸어, 한국문학과 직접 접촉이 없는 여러 나라의 문학까지 가능한 대로 널리 거론하면서, 한국문학연구에서 얻은 성과가 세계문학의 보편성을 얼마나 지니는지, 문학 일반이론 수립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힘써 따져야 한다.¹⁾

1) 조동일, 「비교문학의 방향전환 서설」,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한국: 지식산업사, 1992, 9쪽.

이 주장은 세계문학의 보편성을 정립할 때, 사실적인 영향관계가 전혀 없는 자국의 문학과 타국의 문학을 상호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본고는 위와 같은 이론에 정립하여 평행비교분석의 연구방법으로 실질적으로는 영향관계가 전혀 없지만, 비극적인 여성의 삶이라는 공통적인 주제를 다룬 라오서의 작품 『月牙兒』와 현진건의 작품 『불』을 선정하여, 주인공인 ‘我(나)’와 ‘순이’를 통해서 당시 가부장적인 남성중심사회와 봉건적인 시대 상황에서 여성의 위치로 인해 여주인공의 비극적 상황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비교 탐구하고자 한다. 이렇게 중국과 한국 양국의 현대소설에 공통으로 나타난 여성비극의 현상을 규명해 봄으로써, 비교문학 자체의 목적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거시적으로 세계문학 속의 동양문학의 보편성을 파악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라오서(老舍)와 현진건의 생애과 문학관

라오서(1899~1966)는 현대중국의 사실주의 작가로 도시 하층 여성의 삶에 많은 관심을 갖고 그러한 여성을 주인공으로 삼아 소설을 집필하였다. 이러한 집필의 스타일은 라오서가 어린 시절 살았던 북경 빈민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라오서는 북경에 위치한 빈민촌 출신이다. 아버지는 황성 호위병으로 라오서가 한 살 때 서방 8국 연합군의 침략으로 전사했다. 그 후 라오서는 홀어머니의 힘든 상황을 보면서 어렵게 성장했다. 이렇게 라오서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한 북경사람들의 생활을 몸소 체험하면서 그들의 정서를 깊이 체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경험은 훗날 작품 활동의 밑거름이 되어 거의 모든 작품에 적나라하게 반영되고 나타난다.²⁾

또한 그는 홀어머니가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것을

2) 樊 駿, 「認識老舍」, 『文學評論』6集, 中國: 文學評論雜誌社, 1996, 57쪽.

목격하면서 성장했고, 자신에 대한 어머니의 훈육을 “생명의 교육이다”³⁾ 라고 하였다. 성인이 되서는 사랑하는 여인이 집안 형편 때문에 비구니가 되고 다시 인권을 유린당해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두 여인의 슬픔과 고통스런 삶, 그리고 북경 하층민의 고단한 생활은 라오서의 유년 시절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그의 영혼 속에 깊게 각인되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라오서는 자연스럽게 도시 빈민층 여성의 비애와 고단한 삶을 자신의 작품 속에 담아냈다. 특히, 남성 중심의 가부장주의와 도시 자본주의로 인한 비극적 운명의 불가역성을 역설하게 된다. 이러한 특징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라오서의 『月牙兒』이란 단편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다.

라오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졸업하고 북경사범학교(北京師範學校)에 입학한다. 이는 학비와 생활비를 절약하기 위한 것으로 남보다 열심히 공부해 졸업하면서 17세의 나이로 북경방가호동시립소학(北京方家胡同市立小學)의 교장이 된다. 3년 뒤에는 강남 일대로 교육 시찰을 가고 동시에 교육감이 되지만, 점차 교육계에 만연한 비리에 염증을 느끼고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는다. 그의 처녀작인 『老張的哲學』이 바로 당시 교육감을 지내면서 몸소 보고 느낀 비리와 불합리를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5·4’운동의 열기가 전국으로 확산될 때 라오서는 초등학교 교장으로 직접 운동에 동참할 처지가 아니었지만, ‘5·4’운동은 분명 그의 일생에 큰 전환점이 되었다.

만약에 ‘5·4’운동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평생 이런 사람이었을 것이다. 성실히 초등학교를 관리하고 공손히 노모를 봉양하면서 규정대로 결혼해 자식을 낳았을 것이다. 나는 결코 홀연히 문예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은 작가가 초등학교 교장보다 지위가 높거나 임무가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다. 결코 아니다! 내 말은 ‘5·4’가 없었다면 내가 작가로 변신할 수 없다는 말이다. ‘5·4’는 나에게 작가가 되는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⁴⁾

3) 生命的教育(老舍, 「我的母親」, 『老舍文集』14, 中國: 人民文學出版社, 1989, 249쪽)

4) 假若沒有“五四”運動, 我很可能終身作這樣的一個人: 兢兢業業地辦小學, 恭恭順順地侍奉老母,

라오서의 말처럼 ‘5·4’운동은 그에게 작가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 운동은 나로 하여금 애국주의의 구체적인 표현을 보게 하였고 죽음에서 벗어나 살길을 찾는 초보적인 방법을 이해하게 했다. 반봉건은 나로 하여금 인간의 존엄과 인간은 예교(禮敎)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우쳐주었고, 반제국주의는 나로 하여금 중국인의 존엄과 중국인은 더 이상 서양의 노예가 될 수 없음을 느끼게 했다. 이 두 인식은 나의 훗날 창작의 기본적인 사상과 감정이다.”⁵⁾ 바로 훗날 창작활동의 기본적인 시각과 사고를 제시해 주었던 것이다. 즉, 내우외환을 겪던 청말에 출생한 라오서는 빈곤한 생활로 유년시절을 겪었고 불합리한 사회를 체험함으로써, 차츰 조국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동시에 비인도주의적인 사회를 폭로하는데 이는 ‘5·4운동’에서 큰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후 라오서는 1924년 여름에 친분이 있던 연경대학(燕京大學)의 영국계 교수의 추천으로 영국으로 출국해 런던대학교 동방대학에서 중국어를 5년 동안 강의했다. 당시 라오서는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영문 소설을 많이 읽으면서 한편으로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북경의 모습을 창작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라오서는 훗날 창작회고문에 아래와 같이 말했다.

27세에 출국을 했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 소설을 읽었지만 아직 창작을 생각하지 않았다. 이국의 신선함도 점점 사라지고 반년이 지난 후 적막함을 느꼈고 자주 집을 생각했다. 14살부터 집을 떠나 살았다. 여기 말하는 ‘집 생각’은 사실 국내에 알고 있는 모든 것이었다. 이런 일들은 모두 다 지난 과거로 하나의 그림으로 떠올랐다. 대개 색채가 그리 농후하지 않은 것들은 생각이 나지 않았다. 이런 그림들은 내 마음속에서 왔다 갔

規規矩矩地結婚生子，如是而已。我絕對不會忽然想起來搞文藝。這並不是說，作家比小學校校長的地位更高，任務更重；一定不是！我是說，沒有“五四”，我不可能變成作家。“五四”給我創造了當作家的條件。(老舍, 『“五四”给了我什麼』, 曾廣燦等編, 『老舍研究資料』上, 中國: 北京十月文藝出版社, 1985, 118쪽)

5) 這運動使我看見了愛國主義的具體表現，明白了一些救亡圖存的初步辦法。反封建使我體會到人的尊嚴，人不該作禮教的奴隸；反帝國主義使我感到中國人的尊嚴，中國人不該再作洋奴。這兩種認識就是我後來寫作的基本思想與情感。(위의 책, 118-119쪽)

다 했으며 매번 소설을 읽을 때 무엇을 읽고 있는가를 잊고 멍하니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고 있게 했다. 소설 속의 것도 그림들이고 기억하는 것도 그림들인데 어째서 자신의 그림을 문자로 그려낼 수 없는 것일까? 나는 펜을 들 생각을 했다.⁶⁾

위와 같은 창작동기를 통해 라오서는 장편 『老張的哲學』을 발표한다. 그 뒤 영국에서 두 편의 장편소설 『趙子曰』·『二馬』을 더 발표한다. 귀국 후 라오서는 장편소설 『猫城記』·『離婚』·『牛天賜傳』·『駱駝祥子』 등과 몇 권의 단편소설집을 발표했다. 신중국 건국 이후에는 그는 “語言藝術大家”·“人民藝術家”와 같은 칭호를 받을 정도로 큰 명예를 얻었다.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의 회호리가 전국을 휩쓸기 시작했던 1966년, 라오서도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 홍위병에게 끌려가 모욕과 구타를 당하고 귀가한다. 다음날 라오서는 자신의 울분을 억누르지 못하고 집을 나갔지만 다시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 날 저녁 라오서의 시체가 태평호(太平湖)에서 발견되었다. 중국현대 문학사에 있어 라오서의 죽음은 아주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진건(1900~1943)도 라오서처럼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아주 복잡한 시기에 태어나 생활했다. 특히, 조선의 멸망 후 을사보호조약으로 인한 일제강점기에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격변의 시대를 겪었다. 그러나 그는 라오서와 다르게 유년시절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성장했다. 선친인 현경운은 대한제국 시절 대구우체국 국장을 역임했고, 숙부는 군사령부 총장이었다. 큰형은 러시아군사학교를 졸업하고 러시아대사관에서 통역관으로 근무했고, 둘째 형은 일본 메이지(明治)대학을 졸업한 변호사였으며, 셋째 형은 상해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체포되어 평양에서 출옥 후 사망했다.

6) 二十七歲出國。爲學英語，所以念小說，可是還沒想起來寫作。到異鄉的新鮮勁兒漸漸消失，半年後開始感覺寂寞，也就常常想家。從十四歲就不住在家里，此處所謂“想家”實在是想在國內所知道的一切。那些事既都是過去的，想起來便象一些圖畫，大概那色彩不甚濃厚的根本就想不起來了。這些圖畫常在心中來往，每每在讀小說的時候使我忘了讀的是什麼，而呆呆的憶及自己的過去。小說中是些圖畫，記憶中也是些圖畫，爲什麼不可以把自己的圖畫用文字畫下來呢？我想拿筆了。(老舍, 「我怎樣寫『老張的哲學』」, 위의 책, 522쪽)

소년시절에 대한 그의 자료는 그리 많지 않다. 그의 자전체적 소설 『지새는 안개』를 보면, 어린 시절 대구의 한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하고 서울로 중학교에 간 것으로 나온다. 1910년 모친을 여의고, 1913년 서울로 올라와 중학교에 들어가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으며, 1915년 경주 이진사의 딸 이순득과 결혼하지만 혼자서 일본 동경 세이조(成城)중학교에 유학을 떠나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1917년 졸업 후 잠시 독일어전문학교에서 독일어를 공부했다. 귀국 후, 대구에서 이상화·정백·백기만과 함께 잡지 『炬火』를 창간한다. 1918년 홀연히 중국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셋째 형 정진한테 가서 상해 후장(滬江)대학 독문과에서 공부했다. 이듬해 여름 귀국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그는 『貧妻』에 다음과 같이 썼다.

육 년 전에(그 때 나는 십륙 세이고 저는 십팔 세였다)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 아니 되어 지식에 목마른 나는 지식의 바닷물을 얻어마시려고 표연히 집을 떠났었다.

광풍에 나부끼는 버들잎 모양으로 오늘은 지나(支那), 내일은 일본으로 굴러다니다가 금전의 탓으로 지식의 바닷물도 흠뻑 마셔 보지도 못하고 반 거들충이가 되어 집에 돌아오고 말았다.⁷⁾

여기에서 우리는 그가 동경에서 중학교를 다니고 중국에서 방황한 것이 모두 지식에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당시의 경험은 훗날 그의 창작에 밑거름이 되었다.

1919년 귀국 후, 현진건은 당숙인 현보운의 양자로 들어가 서울에서 생활한다. 그는 당시의 심정을 『墮落者』에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불의에 오촌 당숙이 별세하시니 나는 그의 입후가 아니될 수 없었다. 팔십이 넘은 종조모님의 홀손자가 되고 삼십이 남짓한 당숙모님의 외아들이 되고 말았다. 인제는 집을 떠날 수 없다. 바다를 건너 일본에 가기는 커녕 며칠 시골에만 다녀와도 할머니가 우시며 부시며 집안이 호젓한 것

7) 현진건, 『빈처』, 『한국문학대전집·현진건』, 한국: 태극출판사, 1976년, 490쪽.

을 하소연하신다.⁸⁾

이때부터 현진건은 집을 떠나지 않고 처갓집의 도움을 받으며 창작활동에 몰두한다.

현진건은 처녀작 『犧牲花』를 발표하기 전에 외국작품 2편을 번역하여 발표한 바 있다. 러시아의 아르치바셰프(Artsybashev)가 쓴 단편소설 「행복」과 쿠르트 뮌처(Kurt Munzer)의 『석죽화(石竹花)』로, 『開闢』에 발표했다. 그 후 그는 계속해서 서방의 현실주의 작품을 탐독했을 뿐만 아니라 번역작업도 진행했다. 마치 라오서가 영국 런던대학교에 중국어 강사로 체류하는 5년 동안 많은 소설작품을 읽고 창작의 기초가 된 것처럼, 현진건도 번역작업을 통해서 창작세계를 이해했으며, 이 또한 그의 창작활동에 기초가 되었다.

그는 당시 희극계에 종사하는 당숙 현희운의 도움으로 처녀작 『희생화』를 『개벽』(1920.11)에 발표함으로써 문단에 등단했다. 그 뒤 『貧妻』·『술 권하는 사회』·『墮落者』등을 발표했다. 이 작품들은 현진건의 초기 작품으로 작가와 매우 비슷한 인물을 형상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식인의 고뇌라는 비슷한 주제를 반복하고 있다. 마치 라오서의 초기 작품 『老張的哲學』·『趙子曰』·『二馬』처럼 현진건도 자신의 신변 이야기를 작품의 소재로 삼아 창작했던 것이다.

이후 한편으로는 신문사 기자활동을 하면서 미완성 장편소설 『지새는 안개』와 『피아노』·『우체국에서』·『운수 좋은 날』·『불』·『B사감과 러브레터』·『고향』등 10여 편의 단편소설을 발표했다. 또한, 염상섭·박종화·나빈 등과 함께 『朝鮮文壇』의 평의회에 참가하여 평론을 6차례 발표했다. 그중 「朝鮮魂과 現代精神의 把握」은 문예계 인사들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시간과 장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존재치 못하는 것이다. 달나라의 소
요도 그만둘 일이다. 그림바다의 유희도 그칠 일이다. 조선문학인 다음에
야 조선의 땅을 든든히 디디고 서야 될 줄 안다. 현대문학인 다음에야 현

8) 현진건, 『타락자』, 위의 책, 508쪽.

대정신을 힘있게 호흡해야 될 줄 안다. …… 오직 조선혼과 현대정신의 파악! 이것이야말로 다른 아무것도 아닌 우리문학의 생명이고 특색일 것이다. 달뜬 기염(氣焰)에서 고지식한 개념에서 수고로운 모방에서 한걸음 뛰어나와 차근차근하게 제 주위를 관조하고 고요하게 제 심장의 고통하는 소리를 들을제 이것이야말로 우리문학의 운명인줄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⁹⁾

이것은 문학에 대한 현진건의 견해를 집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문학은 현실과 긴밀하게 결합돼야 한다는 것이다. 당시 암울한 일제강점기하에서 작가들이 현실을 망각하고 예술을 위한 예술을 주장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현재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일제강점기란 특별한 상황에서 작가들의 최선은 도피 혹은 변절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철저한 시대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조선혼과 현대정신의 현실문제를 파악해야 한다는 데서 출발한 현진건은 문학 가치를 판단할 때 예술의 가치를 중시해야 하는 것처럼 내용의 가치도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술은 예술적 가치만 있으면 물론 훌륭한 예술이다. 그러나 이 내용적 가치가 문예작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나는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술적 가치, 예술적 감명만이 인생에 필요치 않다는 건 아니다. 인생을 향상시키지 않는다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것만이라면 너무 미약하다. 희박하다. 예술이 예술이 되는 소이연은 거기 예술적 표현의 유무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로되, 그 결정된 예술이 인생에 대해서 중대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오로지 그 작품의 내용적 가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 생각한다.¹⁰⁾

문학을 통해서 현실을 직시하려던 현진건이 내용의 가치를 중시하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렇다고 내용의 가치만을 중시하고 예술적인 가치를 무시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 시기 현진건의 작품은 초기 신변소설의 창작 방법을 탈피하고 객관적으로 인생을 관찰하고 당시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반

9) 현진건, 「朝鮮魂과 現代精神의 把握」, 『開闢』 第65號, 1925, 134-135쪽.

10) 현진건, 「이러쿵 저러쿵」, 『開闢』 第44號, 1924, 120쪽.

영했다. 초기의 작품과 비교해서 주제면에서도 더욱 폭넓고 깊어졌다.

상해에서 독립운동을 하던 셋째 형 정건이 체포되어 평양에서 출옥 후 1932년 12월 사망하고, 형수 또한 자살하자, 현진건은 이 일로 큰 충격을 받고 창작활동을 접고 신문사 일만 매진하며 매일 같이 술을 마셨다. 1936년 독일 베를린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우승하자 일장기를 말살하고 태극기로 승리를 보도한 신문기사에 연루되어 1937년 사직하고 양계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창작활동에 매진했다. 이때 현진건은 고통 받은 백성의 입장에서 백성을 이해하려고 했고 식민시대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다하려 했다. 현진건은 이때 『적도』와 역사소설 『웃는 褒姒』·『舞影塔』·『黑齒常之』·『善花公主』 등을 발표했다.

1943년 현진건은 결핵으로 사망했다. 종합적으로 보면, 현진건의 생애는 일제강점기 식민지 사회를 겪으면서 일본의 압박과 회유 정책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민족정신을 지켰다. 그는 당시 한국이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면서 일본에 대항했다.

라오서와 현진건은 한중 양국 현대문학사의 대표적인 작가의 한 사람으로 모두 2, 30년대 창작활동을 했다. 그들은 20세기 초 반식민지 혹은 식민지 사회로 인해 양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가 격변하고 양국이 처한 환경이 아주 비슷한 시기에 생활했다. 이러한 상황은 두 사람의 작가의식을 배양시켰다. “일체의 문학작품은 모두 객관적인 사회생활에서 온 것으로 모두 일정한 사회생활의 반영이다.”¹¹⁾ 또한 “작가는 생활에 깊이 파고들어야 하며 생활의 토양에 깊이 뿌리내려야 하고 묘사하고자 하는 생활에 대해 깊은 느낌과 인식이 있어야 강력한 창작 충동과 욕망이 생긴다. 이것이 문학창작이 성공할 수 있는 기초이다.”¹²⁾ 비록 두 작가는 다른 가정형편에서 성장했지만, 당시 한중 양국이 처한 사회적 환경이 비슷했을 뿐만 아니라 반식민지 혹은 식민

11) 一切文學作品都來源客觀的社會生活，都是一定的社會生活的反映。(黃世瑜，『文學理論新編』，中國：華東師範大學出版社，1986，25쪽)

12) 作者就需要深入生活，扎扎實實地植根于生活的土壤，對所描寫的生活有深切的感受和認識，激發起強烈的創作沖動和欲望，這是文學創作取得成功的基礎。(黃世瑜，위의 책，25쪽)

지 통치하에서 지식인의 한사람으로서 받아들인 영감 또한 비슷했다. 따라서 한중 양국에 민족주의·인도주의·애국주의·현실주의 등 창작경향이 비슷한 두 작가가 출현했다. 그들은 모두 풍부한 생활경험을 바탕으로 외국에서 신문화를 접촉할 기회가 있었으며 외국문학은 그들의 창작활동의 기초가 되었다.

3. 『月牙兒』의 비극적 요소

라오서의 대표작은 다 알다시피 『駱駝祥子』이다. 그는 장편소설 창작에 소질이 있어 당시 많은 독자를 확보했지만, 그의 단편소설도 우수한 것이 많다. 특히 본고에서 선정한 『月牙兒』는 그의 몇몇 장편소설보다 더 깔끔한 필체로 가련한 어린 여성의 심리를 적나라하게 묘사하고 있다. 『月牙兒』는 라오서의 단편소설집 『櫻海集』(1935년 8월 출간)에 발표했다. 그러나 라오서의 말에 따르면, 『月牙兒』은 이미 1931년 탈고한 장편소설 『大明湖』의 일부분으로 상해 상무인서관(商務印書館)에 보관 중인 원고가 “1·28”상해전쟁의 포화로 소각되자 다시 쓴 작품이다. 라오서는 상당히 애석하게 여겼으나 다시 쓰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그러나 『大明湖』중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단락을 다시금 가다듬어 발표한 것이 바로 『月牙兒』이다.¹³⁾ 라오서는 「老舍選集·自序」에서도 소설 『月牙兒』은 장편소설 『大明湖』중 가장 정채된 부분을 산문시를 쓰듯이 만들었다고 밝힌바 있다.

『月牙兒』은 주인공 ‘我(나)’가 초승달이라는 경물묘사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과 심리의 변화 등을 형상화하는 일인칭소설이다. 주인공 ‘我(나)’가 초승달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하는 서술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순수했던 주인공이 자신의 힘으로는 세상의 역경을 헤쳐 나가지 못하고 엄마의 뒤를 이어 사

13) 拿『月牙兒』說吧。它本是『大明湖』中的一片段。『大明湖』被焚之后，我把其他的情節都毫不可惜的忘奔，可是忘不了這一段。這一段是，不用說『大明湖』中最有意思的一段。(老舍，「我怎樣寫短篇小說」，曾廣燦等編，『老舍研究資料』上，中國：北京十月文藝出版社，1985，555쪽)

회적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매춘을 할 수밖에 없는 온전치 못한 초승달과 같은 여성의 삶을 조명한 작품이다.¹⁴⁾

『月牙兒』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도시 하층민 여성의 어려운 생활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다. 도시에서 생활하는 모녀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모녀가 차례로 어쩔 수 없이 매춘부가 되는 이야기이다. 주인공인 ‘我(나)’는 어린 시절 부친을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는 순진한 소녀아이이다. 그녀들의 비극은 가장인 아버지의 사망하면서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시작된다.

나는 혼자 계단에서 초승달을 보았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고 아무도 나에게 저녁밥을 해 주지 않았다. 나는 집안의 비참함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모두들 아빠의 병이..... 말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나는 내 자신이 더욱 비참하다고 느껴졌다. 나는 춥고 배고팠고 아무도 나를 상대해 주지 않았다. 나는 초승달이 떨어질 때까지 줄곧 서 있었다. 아무것도 없게 되자 나는 울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지만 내 울음은 엄마에 의해 삭혀들었다. 아빠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고 얼얼한 하얀 천이 덮였다. 나는 흰 천을 걷어 아빠를 다시 보고 싶었다. 그렇지만 할 수 없었다. ¹⁵⁾

어머니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我(나)’를 굶겨 죽이지 않기 위해 재혼을 한다. 이로 인해 주인공 ‘我(나)’는 비교적 평범하고 안정된 어린 시절을 보낸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새아버지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모녀를 버리고 떠난다. 다시 모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고, 어머니는 힘든 현실을 극복해 보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결국엔 자신의 몸을 파는 비참한 지경에 이른다. 그렇지만 주인공 ‘我(나)’는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 매춘을 하

14) 김기주, 「老舍의 『月牙兒』 과 『陽光』 상관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2007, 14쪽.

15) 我獨自在台階上看着月牙，沒人招呼我，沒人顧得給我作晚飯。我曉得屋里的慘淒，因為大家說爸爸的病……可是我更感覺自己的悲慘，我冷，餓，沒人理我。一直的我立到月牙兒落下去。什麼也沒有了，我不能不哭了。可是我的哭聲被媽媽的壓下去；爸，不出聲了，面上蒙了塊白布。我要掀開白布，再看看爸，可是我不敢。(老舍, 『月牙兒』, 『老舍文集』8, 中國: 人民文學出版社, 1985, 263-264쪽)

는 엄마를 증오하기 시작한다. 그 후 엄마는 또 다시 만두집 사장을 만나 새롭게 살림을 차리지만, 주인공 ‘我(나)’는 엄마를 이해하지 못하고 독립하기로 결심한다. 살기 위해 학교사환 등 여러 가지 일을 해보지만 결국 자신도 그토록 증오하던 매춘부의 길을 걷게 된다. 매춘행위로 인해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결국 감방에 수감된다. 이는 “도시 자본주의사회가 발전하면서 남성중심주의 사회가 만든 비극으로 인해 도시 하층여성이 독자적인 삶을 꾸려나가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¹⁶⁾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月牙兒』은 밤하늘에 떠 있는 ‘초승달’을 상징적인 경물로 사용해서 주인공인 ‘我(나)’의 심리적인 상태를 아주 세밀하게 투영해 주고 있다. 즉, ‘초승달’은 “여러 가지 다른 감정, 여러 다른 경물을 띠고 있는 것”¹⁷⁾으로 작품 속에 존재하면서 주인공인 ‘我(나)’의 심리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또한 작품은 경물 ‘초승달’을 통해서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 작품 내의 사건들은 줄거리를 전개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기보다는 주인공의 심리변화를 추적하여 보여주기 위한 장치로서의 역할에 그쳐 보이기까지 한다.¹⁸⁾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빈부와 귀천의 격차를 늘리고 도시민 삶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도시하층민 여성 삶에 더더욱 그러하다. 주인공 ‘我(나)’와 어머니의 비극은 가부장제의 중심인 아버지의 죽음으로 시작된다. 가장인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살기위해 발버둥치지만 결국 차례로 매춘을 하게 되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처하게 된다.

우선 엄마가 매춘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은 돈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경제적 곤경이라는 두터운 장벽 때문에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모든 길이 막힌 그녀는 정신적인 버팀목을 잃고 ‘운명의 불가역성’에 순응하게 된 것이다.¹⁹⁾ 주인공 ‘我(나)’는 엄마가 가족의 생계를

16) 김명균, 유재성, 「老舍의 『月牙兒』 과 토마스 하디의 『더버빌가의 테스』 에 관한 비교연구」, 『인문연구』 제60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297쪽.

17) 它帶着種種不同的感情, 種種不同的景物(老舍, 『月牙兒』, 『老舍文集』 8, 中國: 人民文學出版社, 1985, 263쪽)

18) 김의진, 「『月牙兒』와 『陽光』에 나타난 여성의 비극」, 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2, 2007, 78쪽

위해 어쩔 수없이 매춘부가 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신도 엄마처럼 매춘부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현실이 결국 주인공 앞에 펼쳐졌다.

일은 내가 좋은 방법을 생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더욱 나빠졌다. 엄마가 내게 물었다. “어때?” 만약에 내가 정말 그녀를 사랑한다면 엄마는 내가 마땅히 그녀를 도와야 한다고 했다. 그렇지 않다면 그녀는 더 이상 나를 책임질 수 없었다. 이것은 엄마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지만 그녀는 분명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아주 정확히 말했다. “나는 이미 피 늙었다. 다시 몇 년이 지나면, 공짜로 준다고 해도 아마 아무도 안 원할 거야!” 이것은 맞았다. 엄마는 요즘 분을 엄청 많이 발랐지만 얼굴엔 주름살이 보였다. 그녀는 이렇게 할 생각이었다. 그녀는 오직 한 남자만 시중들 생각이었다. 그녀는 여러 남자를 상대할 정신이 없었다.²⁰⁾

엄마는 딸인 ‘我(나)’에게 “나는 이미 피 늙었다. 다시 2년이 지나면 공짜로 준다고 해도 아마 아무도 안 원할 거야!”라고 탄식하며 ‘我(나)’에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마땅히 도와야 한다고 말한다. 경제적으로 생활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엄마가 주인공인 ‘我(나)’에게 너라도 몸을 팔아서라도 생계를 유지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딸에게까지 매춘을 강요하는 처참한 상황은 가부장적인 남성중심의 자본주의사회의 산물이다. 엄마의 매춘 일을 증오하고 혐오하던 주인공 ‘我(나)’는 어렵게 여러 일자리를 찾아보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남성중심의 사회 세상에서 여성이 일자리를 얻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얼마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차츰 깨닫고 엄마가 부득이 매춘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처지를 차츰 알게 된다. 결국 주인공 ‘我(나)’는 여성이 홀로 독립하여 일

19) 주 후이링, 「돈·여성·남성 : 『초승달(月牙兒)』의 주제 분석」, 『젠더와 사회』 7, 한양대 여성연구소, 2008, 159쪽.

20) 事情不容我想好方法就變得更壞了。媽媽問我, “怎樣?” 假若我真愛她呢, 媽媽說, 我應該幫助她。不然呢, 她不能再管我了。這不象媽媽能說得出的話, 但是她確是這麼說了。她說得很清楚: “我已經快老了, 再過兩年, 想白叫人要也沒人要了!” 這是對的, 媽媽近來擦許多的粉, 臉上還露出摺子來。她要再走一步, 去專伺候一個男人。她的精神來不及伺候許多男人了。(老舍, 『月牙兒』, 『老舍文集』 8, 中國: 人民文學出版社, 1985, 271쪽)

자리를 구해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한다. 당시의 도시 하층민 여성들은 고단한 생계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까지도 처참하게 사회에 짓밟힌 것이다.

이러한 곤경 속에서 주인공 ‘我(나)’는 한 가닥 희망인 남자를 만나게 된다. 그러나 그 남자는 유부남으로 그 남자의 아내가 둘 사이의 관계를 청산하길 요구하자, 주인공 ‘我(나)’는 그 남자와의 관계를 깨끗이 정리한다. 상처를 받은 주인공 ‘我(나)’는 여자가 혼자서 자기의 능력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매우 힘들다고 느끼며, 여자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엄마가 간 길이고 엄마의 길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결국 어려서부터 물건을 전당포에 맡기면서 돈이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인식한 주인공 ‘我(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도시 하층민의 여성이 불행한 삶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사회를 원망한다.

나는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침대에 누워 죽음을 기다렸다. 나는 내가 곧 죽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나는 죽지 않았다. 문밖에 문을 두드리며 나를 찾는 이가 있었다. 좋다. 그를 상대해서 병을 최대한 전염시키자. 나는 이게 미안한 일이라고 느끼지 않았다. 이것은 처음부터 내 잘못이 아니었다. 나는 다시 약간 기분이 좋아졌다. 나는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셨다. 나는 이미 3, 40대 같았다. 내 눈언저리가 창백해지고 손바닥에 열이 났다. 나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었다. 돈이 있어야 비로소 살 수 있다. 우선 배불리 먹고 다시 생각하자.²¹⁾

주인공 ‘我(나)’는 성병에 걸려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매춘을 통해서 성병을 전염시킬 것을 결심한다. 그러한 행동은 사회에 대한 원망이며, 심지어 남성중심의 자본주의에 대한 보복이자 저항인 것이

21) 我穿好了衣裳，擦上了脂粉，在床上躺着，等死。我相信我會不久就死去的。可是我沒死。門外又敲門了，找我的。好吧，我伺候他，我把病盡力地傳給他。我不覺得這對不起人，這根本不是我的錯誤。我又痛快了些，我吸煙，我喝酒，我好象已是三四十歲的人了。我的眼圈發青，手心發熱，我不再管；有錢才能活着，先吃飽再說別的吧。(老舍，『月牙兒』，위의 책，285쪽)

다.

주인공 ‘我(나)’는 도시 하층민 여성으로 살아남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돈은 사람보다 더 악랄하고, 사람이 만약 짐승이라면 돈은 짐승의 쓸개다”²²⁾ 라고 돈에 대한 정의를 내리며, 절망적인 탄식을 내뿜는다. 결국 ‘我(나)’는 감옥이라는 폐쇄사회로 가게 되며, 여성의 몸으로서 현실적인 남성중심주의 사회를 뚫고 나아갈 수 없는 생존환경임을 직시한다. 현실로 나아가기 보다는 감옥세계가 오히려 더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처럼 ‘세계 = 감옥’이라는 섬뜩한 결론은 하층 여성의 생존환경에 대해 작가가 느낀 이미지이자 최종적인 판단이다.²³⁾

『月牙兒』은 작품 속에서 주인공의 정신적인 변화 과정과 고단한 삶을 섬세하게 묘사했으며, 자본주의 도시사회에서 돈이라는 마수가 가난하고 선량한 여성들을 얼마나 잔혹하게 심연(深淵) 속으로 빠뜨리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육체는 무참히 짓밟히고 정신은 소외되며 마음은 왜곡되는 등 인물들의 육체와 영혼이 차례차례 돈이라는 마수에 걸려 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돈이 지배하는 계급사회를 철저하게 비판하였다.²⁴⁾ 결국 자본주의 도시사회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유하기 위해 모녀는 차례로 어쩔 수 없이 매춘에 빠지면서까지 안간힘을 쓰지만, 결국 벗어나지 못하는 비극적인 운명에 놓이게 된다.

4. 『불』의 비극적 요소

『불』은 현진건이 『운수 좋은 날』을 쓰고 연이어서 쓴 단편소설이다.

22) 錢比人更厲害一些，人若是獸，錢就是獸的胆子。(老舍, 『月牙兒』, 위의 책, 285쪽)

23) 김명균, 유재성, 「老舍의 『月牙兒』과 토마스 하디의 『더버빌가의 테스』에 관한 비교 연구」, 위의 책, 302쪽.

24) 주 후이링, 「돈·여성·남성 : 『초승달(月牙兒)』의 주제 분석」, 위의 책, 161쪽

『운수 좋은 날』이 도시하층민의 고통스런 삶을 성공적으로 묘사했다면, 이 작품은 젊은 여성의 비극적인 농촌 삶을 성공적으로 묘사했다고 말할 수 있다. 『불』은 한 젊은 농촌 여성이 더 이상 육체적·정신적인 고통을 인내하지 못하고 집에 불을 지르면서 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이야기이다.

15세 ‘순이’는 시골 아가씨로 가난한 빈농의 어린 며느리이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쇠죽 끓이고, 아침 준비하고, 물 기르고, 절구질하고, 점심하고, 밥 나르고, 저녁하고 한시도 쉴 틈이 없이 일만 한다. 밤에는 아버지뻘 되는 남편에게 매일 같이 성적인 대상이 된다. 작가는 ‘순이’가 마치 노예처럼 매일같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능욕당하는 운명에 대해 동정을 표시하고 있다.

하루는 ‘순이’가 “밤이 되면 으레히 당하는 이 몹쓸 노릇을 하루라도 면하려고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마자 아무도 몰래 헛간으로 숨었었다.”²⁵⁾ 그리고 벼섬을 의지 삼아 자신도 모르게 잠에 떨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그의 남편은 성욕 해결의 대상으로 그녀를 찾아서 결국 “원수의 방”에 옮겨 성욕을 해결한다. 이렇듯 ‘순이’는 밤만 되면, “배꼽에서 솟아오르는 공포와 창자를 뒤트는 고통에 몸을 떨었다가 버르적거렸다가 하면서 엄치없는 잠에 뒷덜미를 잡히기도 하고 무서운 현실에 눈을 뜨기도 하였다.”²⁶⁾ 그녀가 남편에게 능욕을 당하고 비몽사몽으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던 어느 날 새벽, 시어머니의 호통 소리가 들린다.

“안 일어났니! 어서 쇠죽을 끓여야지!”²⁷⁾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깜짝 놀란 ‘순이’는 옷을 주섬주섬 차려 입고 허겁지겁 “원수의 방” 밖으로 나온다. 현진건은 작품 속에서 그녀가 방밖으로 나오는 장면을 아래와 같이 묘사하고 있다.

25) 현진건, 『불』, 『한국문학대전집·현진건』, 한국: 태극출판사, 1976, 565쪽.

26) 현진건, 『불』, 위의 책, 565쪽.

27) 현진건, 『불』, 위의 책, 565쪽.

총총히 마루로 나오니 아직 날은 다 밝지 않았다. 자욱한 안개를 격해서 광채를 잃은 흰 달이 죽은 사람의 눈깔 모양으로 희멀겁게 서쪽으로 기울고 있다.²⁸⁾

현진건도 라오서의 『月牙兒』처럼 ‘초승달’을 상징적인 경물로 묘사했다. 초승달은 주인공인 ‘순이’의 의지할 곳 없는 심리적인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한시도 쉽 없이 쇠죽 끓이고, 아침 준비하고, 물 기르고, 절구질하고, 점심하고, 농사일하는 남편에게 점심을 나르러 가던 중 심신이 허약한 ‘순이’는 그만 졸도하고 만다. 그러나 잠시 뒤 깨어났을 때, 자신이 “원수의 방”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미친 듯이 마루로 뛰어나왔다. 그의 눈은 마치 귀신에 홀린 사람 모양으로 두려움과 무서움에 휘둥그레졌다.”²⁹⁾ ‘순이’는 더 이상 이런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런 고통에서 해방되고자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온전히 그 원수의 방 때문이다. 만일 그 방만 아니면 남편이 또한 눈물을 씻어 주고 나갈 따름이다. 그 방만 아니면 그런 고통을 주려야 줄 곳이 없을 것이다. 고 원수의 방을 없애 버릴 도리가 없을까?³⁰⁾

‘순이’는 자신이 겪는 고통이 모두 그 “원수의 방”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원수의 방”을 없애버릴 생각을 한다. 마침 그녀가 부엌에서 저녁밥을 할 때 우연히 그녀의 눈에 성냥이 들어온다. 순간적으로 “원수의 방”을 없애 버릴 수 있는 방법이 뇌리를 스쳐간다. 바로 방화이다.

밥이 보그르하고 넘었다. 순이가 솔뚜껑을 열려고 일어섰을 제 부뚜막에 얹힌 성냥이 그의 눈에 띄었다. 이상한 생각이 번개같이 그의 머리를 스쳐나간다. 그는 성냥을 쥐었다. 성냥을 켜 그의 손은 가늘게 떨리었

28) 현진건, 『불』, 위의 책, 565-566쪽.

29) 현진건, 『불』, 위의 책, 567쪽.

30) 현진건, 『불』, 위의 책, 569쪽.

다. 그러자 사면을 한 번 돌아다볼 결도 없이 그 성냥을 품속에 감추었다. 이만하면 될 일을 왜 여태껏 몰랐던가 하면서 그는 생그래 웃었다. 그 날 밤에 그 집에는 난데없는 불이 건넌방 뒤꼍 추녀로부터 일어났다. 풍세를 얻는 불길의 삼시간에 온 지붕에 번지며 훨훨 타오를 제 그 뒷집 담 모서리에서 순이는 근래에 없이 환한 얼굴로 기뻐 못 견디겠다는 듯이 가슴을 두근거리며 모로 뛰고 세로 뛰었다. …… 31)

이 소설의 말미 마지막 문장이다. 남편의 성적인 횡포와 고달픈 생활에서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은 집에 불을 지르는 길이라고 생각한 ‘순이’는 마침내 방화를 하고 해방의 희열을 느낀다. 이는 ‘순이’가 농촌사회의 어두운 현실과 전통적인 관습 및 남성의 횡포에 “불”로 대항한 셈이다. “‘순이’의 放火는 소외된 下層民들의 生活因習의 不條理한 矛盾에서 빚어진 內的 抑壓의 폭발인 것이다.”³²⁾ 현진건은 작품에서 민며느리 제도를 창작의 소재로 삼아 당시 하층민 부녀자들이 사회적인 구조와 시대적인 모순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비극적인 운명을 적나라하게 폭로했다.

비록 ‘순이’는 “원수의 방”을 불태우고 기뻐하지만, 그녀의 문제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현진건은 구체적으로 결과를 표현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더 큰 고통이 ‘순이’에게 찾아왔을 것이다. ‘순이’가 처한 환경은 결코 해방이 아니라 더 큰 절망에 빠졌을 것이다. 현진건은 ‘순이’가 고통 받는 원인을 단지 “원수의 방”으로만 단정시켰지만, ‘순이’의 고통은 사회적인 구조와 시대적인 모순에서 야기된 것이다. 이것은 빈곤과 전통의 인습으로 말미암아 생성되는 시대적 모순에 소극적으로나마 대응하는 함의가 있다.

5. ‘我(나)’와 ‘순이’의 비극적 요소 비교

라오서와 현진건의 두 작품에서 비극적인 여성의 삶은 당시의 시대상과 깊

31) 현진건, 『불』, 위의 책, 569쪽.

32) 尹弘老, 『韓國近代小說研究』, 한국: 一潮閣, 1980, 141쪽.

은 연관이 있다. 『月牙兒』의 비극은 아빠가 죽은 후에 도시 하층민인 모녀가 남성중심의 자본주의 도시사회에서 생계를 위해 백방으로 일자리를 구해보지만, 결국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어쩔 수없이 매춘을 선택함으로써 시작된다. 『불』의 비극은 농촌사회의 어두운 현실과 전통적인 관습 및 가부장적인 남성의 횡포로부터 야기된 것이다.

이 두 소설은 당시 여성들의 삶의 애환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라오서의 『月牙兒』 주인공 ‘我(나)’는 엄마의 매춘을 증오하지만, 결국 자신도 어쩔 수없이 매춘을 선택하여 엄마를 부양하는 동일한 비극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주인공 ‘我(나)’는 도시 하층민 여성으로서 정당한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어쩔 수없이 몸을 파는 매춘부 생활을 결국 선택하게 된다. 라오서는 소설 속에서 거의 대부분의 여성 주인공을 돈만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도시사회에서 가난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리고 있다. 라오서 작품 속에서의 “가난은 당대의 자본주의의 도래와 소자본집단의 붕괴라는 시대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작품속의 주인공은 모두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돈을 추구하다가 불행에 빠지고 만다.”³³⁾ 『月牙兒』의 주인공 ‘我(나)’는 “짐승의 쓸개”와 같은 돈을 벌기 위해 어쩔 수없이 매춘을 하고, 또 성병을 얻고서도 죄의식 없이 계속 매춘을 이어가고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고 마는 불행에 빠지지만, 이곳이 오히려 더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현진건의 『불』 또한 15세밖에 안 되는 ‘순이’가 민며느리로 들어가서 매일같이 시어머니의 갖은 꾸중과 학대 속에서 힘겨운 노동에 시달리게 된다. 하루 종일 시달린 피곤한 몸으로 잠자리에 들면 다시 우악스러운 남편의 성행위에 육체적인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이렇듯 두 작품 속의 여성은 선량하고 순진하며 아름다운 심성을 갖춘 가녀린 여성이지만, 우리 사회가 이들을 무서운 괴물로 만든 것이다.

라오서는 『月牙兒』에서 도시 하층민 여성이 자본주의 도시 사회에서 생

33) 劉麗雅, 「蔡萬植과 老舍의 小說에 나타난 女性의 悲劇的 삶에 관한 比較研究」, 『中國學論叢』 1-1, 1992, 172쪽.

계를 위해 어쩔 수없이 몸을 파는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되는 비극적 여성의 삶을 주인공인 ‘我(나)’를 통해서 형상화하였다. 주인공 ‘我(나)’의 기억에 따르면, “돈은 사람보다 더 악랄하고, 사람이 만약 짐승이라면 돈은 짐승의 쓸개이다.” 이처럼 ‘我(나)’는 “남성 = 짐승 = 돈”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라오서는 주인공 ‘我(나)’라는 대변인을 통해 심각한 성 차별 문제를 고발하며 남성 지배 문화를 강렬하게 비판한 것이다.³⁴⁾ 현진건 또한 『불』에서 여성을 남성의 성적인 도구로 표현했다. 성에 무지한 채 시집을 간 어린 민며느리에게 일방적인 부부관계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게 폭력으로 느껴지는지를 심도있게 묘사했다. 남편에 대한 ‘순이’의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다. 변쩍이는 눈갈의 흰 자위, 힘이 께 흐르는 입술, 누른 잇발 등은 ‘순이’가 남편에게 느끼는 공포의 대상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순이’에게 “남편 = 배우자”가 아니라 “남편 = 괴물 = 원수”로 각인된다. 남편에 대한 공포는 일방적인 성관계의 강요로 인한 육체적 고통 때문이다. 미성숙한 아내에게 성은 두려움이다. 남편과의 성적 결합에 대한 공포는 남편과 잠자리를 하는 방으로 투사되며 ‘순이’는 방을 원수의 공간으로 생각한다. 방을 피하면 공포스러운 일들을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이 역시 순조롭지 않다. 이렇게 도구로 전락한 성에 대한 극복은 성이 남성이나 가정에서 소유된 물건으로서가 아니라 생명을 지닌 독자적인 존재라는 인식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이러한 자각행동은 “원수의 방”에 대한 공포나 그것에 대한 거부 생각으로 불을 지른 것으로 바로 남편의 성욕의 도구로써의 억압에서 벗어나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충동 때문이었다.³⁵⁾ 또한, “『불』에서 여성은 노동, 가부장제, 남성 중심적 가치, 왜곡된 성의식으로 억압받고, 소외당한다. 여성의 권리나 욕망은 배제된 채 남성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 노동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다. 남성은 지배, 여성은 종속이란 이분법적인 모습이 극명히 드러난다.”³⁶⁾

34) 주 후이링, 「돈·여성·남성 : 『초승달(月牙兒)』의 주제 분석」, 『젠더와 사회』 7, 한양대 여성연구소, 163-164쪽.

35) 윤홍로, 『한국문학의 해석학적 연구』, 한국: 일지사, 1976, 141쪽.

36) 진성정, 『현진건의 「불」과 영화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의 여성인물 연구』,

6. 나오는 말

본고는 동양문학 작품 간에 사실적으로 주고받은 영향관계나 교류가 전혀 없었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를 찾아보고자 비교연구의 방식으로 라오서와 현진건의 작품을 탐구한 것이다. 필자는 두 작품의 비교연구를 통해 작품 속 비극적인 요소가 어떻게 당시 여성들의 삶에 투영되었는지를 공통된 모티프를 통해 분석했다. 라오서와 현진건은 소설 속에서 도시 하층민 출신의 ‘我(나)’와 빈농 출신의 여성인 ‘순이’가 전통적인 남성중심의 봉건사회에서 어떻게 비극적인 삶을 꾸려가는지를 사실적으로 형상화했다.

라오서는 자본주의 도시 사회에서 하층민 여성이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차별 속에서 어쩔 수없이 비극적인 삶을 영유할 수밖에 없는 불가역성을 표출했다. 작품 내에서 주목할 사항은 남성 중심주의 계급 제도의 문제점을 풍자하는 한편, 계급제도와 남성 지배 문화의 틈바구니 속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여 주인공의 저항정신을 부각시켰다는 사실이다.³⁷⁾ 반면, 현진건의 ‘순이’는 어린 나이인 15세로 가난한 농부의 민며느리이다. 1920년대는 조혼의 풍습과 더불어 가난이 삶의 전부였던 때로 당시 농촌여성의 결혼은 대부분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채 이루어졌으며, 15세 미만의 조혼에는 특히 빈농의 딸들이 많았다. 이들은 대부분 가난 때문에 몇 푼의 돈이나 쌀에 팔려 어린 나이에 강제로 결혼하거나 첩이 되었다. 주인공 ‘순이’는 경제적·사회적 관습에 희생된 인물로 연약하고 순결한 여성이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자비한 운명의 힘에 압도당하는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주인공인 ‘我(나)’와 ‘순이’의 비극적인 결말의 원인은 이상의 분석과 달리 많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당시 시대적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주인공 ‘我(나)’는 자본주의 도시 사회에서 아빠의 이른 죽음으로 인해 경제적인 고통 받으면서 결국 엄마처럼 매춘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함으로써 삶이 파괴되게

『한남어문학』 제37집, 한남대학교 한남어문학회, 2013, 255쪽.

37) 주 후이링, 「돈·여성·남성 : 『초승달(月牙兒)』의 주제 분석」, 위의 책, 164쪽.

되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현진건은 ‘순이’가 고통 받는 원인을 단지 “원수의 방”으로만 단정지었지만, ‘순이’의 고통은 사회적인 구조와 시대적인 모순에서 야기된 것이다. 주인공 ‘순이’가 자신의 의지대로 저항할 수 없었던 것은 그녀를 둘러싸고 있던 당시 한국 농촌의 사회적 상황들에 의하여 고착화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두 소설 속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은 당시 사회나 소속계층의 차이로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여준다. 라오서 『月牙兒』의 주인공은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 행동으로 실행하는 것보다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반면, 현진건 작품의 주인공은 육체적인 능욕과 고달픈 생활에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이 집에 불을 지르는 길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방화를 하고 해방의 희열을 느낀다. 결국, ‘순이’는 농촌 사회의 어두운 현실과 전통적인 관습 및 남성의 횡포에 ‘불’로 적극적으로 대항한 셈이다.

이상과 같이 라오서와 현진건은 각자의 독특한 서술방식으로 당시 하층민 여성들의 비극적인 삶을 리얼리티하게 보여주었다. 비록 상호간 문학적인 교류나 영향일 주고받은 적은 없지만 문학의 보편적인 특징을 찾아 볼 수 있었다.

參考文獻

- 老舍, 『老舍文集』(共16卷), 중국: 人民文學出版社, 1980-1991.
- 조동일, 「비교문학의 방향전환 서설」 『한국문학과 세계문학』, 한국: 지식산업사, 1992.
- 박준석, 「老舍『月牙兒』小考」, 『중국어문논총』 제2집, 고려대학교 중국어문연구회, 1989.
- 이수웅, 『노사(老舍) 생애와 문학』,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1994.
- 유재성, 「노사(老舍)의 작품세계 - 단편소설을 중심으로-」,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논문집, 2005.
- 樂黛云, 「比較文學的名與實」, 『比較文學原理』, 중국: 湖南文藝出版社, 1988.
- 樊駿, 「認識老舍」(上下), 『文學評論』 5, 6集, 중국: 文學評論雜誌社, 1996.
- 曾廣燦等編, 『老舍研究資料』(上), 중국: 北京十月文藝出版社, 1985.
- 黃東濤, 『老舍小識』, 홍콩: 世界出版社, 1979.
- 黃世瑜, 『文學理論新編』, 중국: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86.
- 김기주, 「老舍의 『月牙兒』 과 『陽光』 상관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중국어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2007.
- 김의진, 「『月牙兒』 와 『陽光』 에 나타난 여성의 비극」, 가톨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제12호, 2007.
- 김명균, 유재성, 「老舍의 『月牙兒』 과 토마스 하디의 『더버빌가의 테스』 에 관한 비교연구」, 『인문연구』 제60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 주 후이링, 「돈·여성·남성 : 『초승달(月牙兒)』 의 주제 분석」, 『젠더와 사회』 제7권, 한양대학교 여성연구소, 2008.
- 현진건, 『한국문학대전집·현진건』, 한국: 태극출판사, 1976.
- 현진건, 「朝鮮魂과 現代精神의 把握」, 『開闢』 第65號, 1925.
- 현진건, 「이리쿵 저리쿵」, 『開闢』 第44號, 1924.
- 尹弘老, 『韓國近代小說研究』, 한국: 一潮閣, 1980.
- 劉麗雅, 「蔡萬植과 老舍의 小說에 나타난 女性의 悲劇의 삶에 관한 比較 研

- 究」, 『中國學論叢』 제1권제1호, 한국중국문화학회, 1992.
- 윤홍로, 『한국문학의 해석학적 연구』, 한국: 일지사, 1976.
- 진성정, 『현진건의 「불」 과 영화 「김복남 살인사건의 전말」 의 여성인물 연구』, 『한남어문학』 제37집, 한남대학교 한남어문학회, 2013.
- 최선희, 「한국현대소설에 나타난 불의 상징적 의미-192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목면어문』 제3집, 동국대학교 국어교육과, 1989.
- 김열규 · 신동욱, 『현진건(玄鎭健)연구』, 한국: 새문사, 1981.
- 최원식, 「현진건(玄鎭健)연구」, 『현대문학연구』 13, 서울대학교 현대문학연구회, 1974.
- 현길언, 「현진건(玄鎭健)소설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5.

Abstract

A Comparative Studies between *Crescent Moon* and *The fire*

You, Jae Sung · Lee, Yong Tae

This paper is a research method that compares and examines the universal characteristics that appear in common even when there is no mutual influence or exchange between works of Oriental literature. The paper studied the works of Lao She and Hyun Jin-gun.

In this comparative study, I focused on how tragic factors influenced the lives of women at that time, and intensively analyzed common motifs. In their respective works, Lao She and Hyun Jin-gun realistically portrayed the tragic life of a fragile woman with traditional values through 'I' born in an urban underclass and 'Shunyi', a woman from a rural poor farm.

Key words : comparative study, woman, the tragic life, universality of literature, tragic elements

투 고 일 : 2022. 10. 10. / 심 사 일 : 2022. 10. 15. ~ 2022. 11. 15. / 게재확정일 : 2022. 11. 20.